

# 여성, 노동, 화장실 사진 공모전 지원 가이드

## 【1】단체 설립목적 및 소개

### 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노동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단체 집중 사업으로 '여성 노동자 건강권'을 채택하여 노동안전보건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택하여 활동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팀을 구성하여 매달 1회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여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개최, 노동조합과 연대 활동, 청년여성 정신건강과 산재 여성노동자 연구를 진행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 【2】공모전 개요

### 1. 공모전 명

여성, 노동,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 2. 소개

같은 일터라고 해도,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중요한 노동환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여성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부터 화장실에 갈 시간 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작업강도 등으로 인해 방광염부터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과 관련된 건강권 침해 사례는 너무나 흔하지만, 언제나 사소하거나 여성 특유의 예민한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일터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가 드러내고자 개최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화장실을 사진을 통해 드러내고, 지금껏 어떤 이유로 화장실 접근권이 떨어졌는지 듣고자 합니다. 또한 한편으론 노동자의 권리 요구로 더 나아진 화장실 환경을 발굴해,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3. 공모전 내용

공모 내용, 대상, 접수 일정 등 주요 상세 내용에 대해선 '[\[공고문\] 여성노동화장실 사진공모전 안내\\_2021](#)'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3】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 영향 문제 현실과 시사점**

[참고 자료]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 (2021.03)

<https://kilsh.tistory.com/2967>

#### **\* 노동 및 휴게시간**

- 응답자 25%가 하루 9~12시간 근무
- 하루 근무 중 휴식시간 30분 미만이 전체 23.56% 차지

#### **\* 여성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요인**

- 고정 사업장 근무 여성노동자(제조업, 사무직, 판매, 서비스 등): 인력부족, 노동시간, 고용불안
- 이동방문 근무 여성노동자: 성과압박, 노동시간, 고용불안

#### **\* 가고 싶을 때 바로 갈 수 있나?**

- 화장실 거리가 멀어서 급해도 바로 화장실에 가기 어려움 (3분 이하 접근 가능한 응답자 24.72%에 불과)
- 2/3은 화장실에 도착해도 3분 이상 대기 시간을 겪고 있음

#### **\* 일하면서 화장실 몇 번이나 갈까?**

- 여성은 평균 하루 7~8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5회 이상은 불과 7.93%만 이용. 여성 노동자 10명 중 9명은 5회 이내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음.
- 이동방문 여성노동자의 경우 하루 1~3회 화장실을 가는 응답자가 43.48%로 절반을 차지함.

#### **\* 원할 때 화장실을 가야하는데...**

- 화장실을 원할 때 대체로 가지 못하거나, 전혀 가지 못한다는 응답은 13.53%로 확인
-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거나,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대체 인력이 없고,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너무 멀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주의 동료나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장실을 본인이 원할 때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 **\* 다양한 건강 문제 겪고 있어**

- 근무 중 화장실을 가기 어려워 음식, 수분 섭취 제한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10명 중 3~4명에 해당됨.
- 하지만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1%가 안됨.

## “키워드”

### ■ 화장실과 ‘차별’

- 원하청 관계
- 같은 일터의 구성원 간 이용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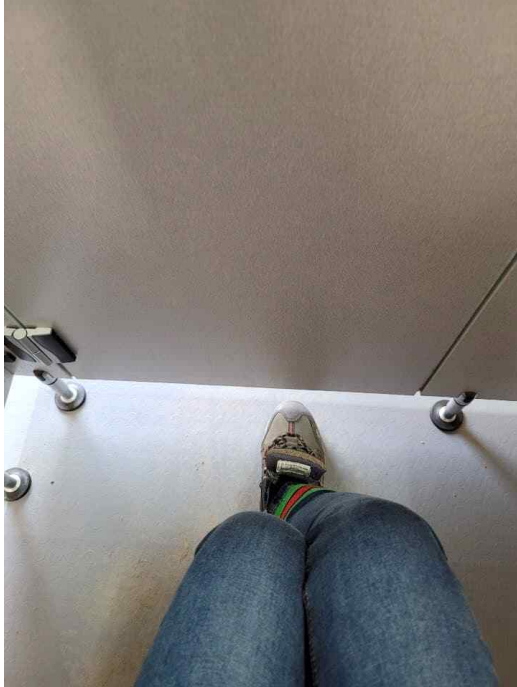
#### ‘여성’노동자에 대한 시선

“그리고 원래가 라인 만들어서 깔고 하는 자리들은 여자 자체가 없대요. 여자 자체가 없었는데 너무 삭막하게 남자들만 일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홍일점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애들도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중략) 여자라고 와서 기사들도 와서 원숭이 보듯이 뒤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앞에 와서 서가지고 쳐다보고.”



- ▲ 학교에는 여러 직종의 학교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본 건물에 있는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경험할 때 느끼는 차별들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는 비데가 있지만 학교 급식노동자 화장실에는 비데 설치 안되는 등). (왼쪽 교직원 화장실, 오른쪽 학교 급식실 화장실) / 출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

■ 여성 노동자가 고려되지 않은 환경 실태



- ◀ 건설 현장에서 근무 하는 여성노동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은 앉으면 비좁아 용변 외 월경 중일 때나 옷을 갈아입고 할 때 어려움이 큼. 여성노동자에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조건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공간 설계의 문제. / 출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



- ◀ 건설 현장에 설치 된 화장실의 모습. 에어컨을 각각 설치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벽걸이 에어컨을 정 가운데 두고 반반 바람이 통하게 설치함. / 출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

## ■ 일터의 구조적 문제

- ‘노동자’가 고려되지 않은 시간표
- “물 마실 틈도” 없는 1인 근무 사업장
- 만성적인 인력부족
- 화장실 운영 기준의 부재
- 이동방문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특수성

일터 내 화장실 운영 기준이 현재로써는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동/방문의 경우 사업주가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장 자체가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 결국 상가건물을 찾아가다니면서 급할 때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에 대응해오는..



▲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청소노동자들 260명이 변기 하나로 용변을 봐야 하는 상황. 화장실에 길게 줄을 선 여성노동자들의 모습  
/ 출처: 화장실 변기 하나로 260명이 사용한다급쇼?, 노동과세계, 2018.01.30.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0=246970>

■ 여성노동자의 참여와 요구 등으로 개선 된 사례



▲ 노동조합과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로 기존에 비데와 에어컨이 없어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화장실이 개선된 장면. / 출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

[참고 기사]

멀거나 시간 쫓기거나...여성노동자 59%, '화장실 문제' 마음고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85460.html#csidxc758afbd285eb2ab3b231a655fd3add>

화장실도 못 가는 여성노동자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7>

“화장실도 맘편히 못가는 현장”...여성 건설노동자들, 노동환경 개선 호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98390.html#csidx009dbc1693422c1987b47c4c1165ad1>

잘나가는 렌탈가전, 방문점검 노동자의 환경은 어떨까?

<https://m.ildaro.com/9134>

[기고] 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화장실 문제, 그리고 건강권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693>

이동·방문 여성 노동자 83%, 화장실 갈까 물도 안 마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773>